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군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
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요 11장 25-26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위임목사 부활절 메시지

회의에서 신앙으로

* 이 설교는 '89년 부활절 새벽, 충현교회에서
전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편집자)

성경/ 고전 15:12-19, 54-58

민족과 시대앞에 부활의 증인이 되자 확실한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오늘아침 우리들은 한 위대한 힘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오셨고 빈부귀천, 춘하추동,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한 힘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흔하는 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주지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찾아오는고로 목석같은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녹이고 평시에 눈물한번 없던 영웅호걸도 그앞에서 서보면 후회와 분노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가 하고자하는 일을 저지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른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찾아주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생각조차하지 않고 관심밖으로 놓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위대한 스승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그의 위력 앞에는 대결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황금과 권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주검말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세상에 허다한 슬픔이 있지만 이별의 슬픔은 참으로 괴롭고 쓰린 것입니다. 이별에도 허다한 종류의 헤어짐이 있지만 죽음의 이별을 후회하면 할수록 더욱 슬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사망의 위력을 이긴 이가 없습니다. 달려오는 자동차를 교통순경이 멈추게할 수는 있으나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멈추게할 힘을 우리는 갖고있지를 못하며 그러기에 사망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영원한 적이기도 한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있는 인생은 마치 풀잎의 이슬보다 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으며 이 사망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사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사망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찾아오기를 시작했으며 왜 왔던가요? 그것은 죄값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롬

6:23). 고로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운명이 된것입니다(민 16:29, 욥 1:21).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고전 15:55-56) 쏘는 것은 독사가 독이든 이빨로 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이 갖고있는 독이든 이빨은 죄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사망은 죄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 죄가 없어지니 사망이 물고 쏘려는 초점은 없어지고 따라서 사망은 이빨 빠진 독사처럼 무력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시므로 그 첫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들 하나님을 살리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영(Life-giving-Spirit)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과 사도바울이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이며 2천년 기독교전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많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생명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진리를 의심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친히 목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 믿는 마음과



▲ 선교관 5층에 충현 영빈관이 개관되었다.(위임목사와 교역자들이 시설을 돌아보고있다)



▲ 3월 19일 주일 찬양예배시 빌립보서 강해가 끝난 기념으로 떡잔치가 벌어졌다.(장로들이 떡을 나누어주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참조

카메라초점

회의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있는 이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 두가지 그림자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연마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는 심령의 질병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철학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영혼의 불행한 상태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의심하는 이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의에서 신앙으로 대 전환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과 회의를 십자가 밑에 묻어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만에 예언대로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다시사신 부활을 환희와 감사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게 된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나가서 전하고, 주안에서 다시 산 우리는 주님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과 죄의 권세하에 잡혀있는 생명을 구원키 위해 그리고 밝고 생명이 있는 새길을 보여주기 위해 민족과 시대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될것을 다짐해야 할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현의 가족들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이종윤 목사

교회당주변을 푸르게 성도들의 좋은 나무 헌수요청

교회는 오는 4월 5일 식목일에 교회당 주변 녹지공원 조성과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아가서 6:10)것처럼 표현하는 우리 예배당은 이번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수로 인해 교

회당주변이 더욱 푸르고 깨끗하게 가꾸어 지기를 원하고 있다.

참여하실 성도는 다음 나무 종류 가운데 1그루씩 헌수해도 좋고, 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해도 무방하다. 4월 4일까지 교회 사무국에서 접수하며 헌수 나무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활호 안은 1그루 나무구입 금액임.

- ①주목(30만원:4그루)
- ②단풍나무(7만원:28그루)
- ③오염송(50만원:10그루)
- ④목련(20만원:2그루)
- ⑤조형소나무(1백만원:19그루)
- ⑥느티나무(1백만원:1그루)
- ⑦눈주목(2만원:200그루)
- ⑧선향(9만원:13그루)

충천교회 권사회조직

회장에 이옥녀권사 하나님영광과 교회유익 위해 헌신다짐

충천교회 권사회 총회가 지난 3월22일 오후1시30분 갈릴리홀에서 개최되어 회칙을 통과시키는 한편 회장에 이옥녀권사를 선출했다.

210명의 권사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1부 예배를 고문 이용선장로 사회로 진행, 구명신전도사의 기도, 성경 행20:19~24절 봉독후 이종윤목사가 「하나님의 일군」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성도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고, 모든것을 참고 주님을 섬기므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세상에선 빛과 소금의 생활, 후손들에게는 복의 기관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고, 마지막날 하나님 심판있음을 기억하며 더욱 충성할 것」을 부탁했다.

2부 총회는 당회가 임명한 권사회조직 준비위원장이 이옥녀권사 사회로 진행, 취지설명, 회칙통과, 회장단선거가 있었다.

경과보고에 의하면 3월2일 있는 2월 정기당회에서 권사회조직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3월14일 권사회 회칙이 당회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권사회 조직을 마치고 위임목사와 임원들 기념촬영

「크로마하프」합주단 창단

본교회는 「크로마하프」 합주단(가칭:미리암합주단)이 창단되어 지난 19일(주일) 오후 찬양예배시 첫연주를 가졌다.

위임목사 이종윤목사가 단원임명식과 아울러 이들의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돌려지도록 특별 기도하고, 계속해서 합주단의 연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이용선장로, 구명신전도사, ▲회장/이옥녀, ▲부회장/(1반)윤재춘, (2반)이신일, (3반)김중복, (4반)전순자, ▲총무/백영희, ▲서기/박은숙, ▲회계/이승자, 심숙.

충천살롱 경로대학 3월30일부터 원서접수

충천 살롱 경로대학(학감/송기홍장로)은 지난 3월20일 오후6시 본교회당에서 교사 특별 총회를 갖고, 봉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최순복전도사의 말씀을 듣고, 2부에서 4월13일 개강을 앞둔 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교과과정 숙지, 그리고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동 경로대학 입학자격은 만60세 이상의 남·여신자 및 불신자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3월 30일부터 4월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업료는 1학기에 5천원이다.



▲「크로마하프」합주단이 창단되어 지난 19일 첫연주를 가졌다.

청년2부 주최
춘계 심포지움

지상중계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제3일

21세기 사회선교의 방향



김 해균(목사·제1교구지도·대학부지도)

이 갈등하면서 상충과 화해를 거듭하면서 나아온 것이다. 이 역사속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성으로서 이것을 절대시하게 되어 나중에는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철저히 깨뜨려진 것이 12차 세계대전인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즉 인간은 비관론적 낙관적 존재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윤리관으로서 사회윤리를 개인 윤리와 사회윤리로 양분하게 된다. 개인윤리는 사랑과 자기실현을, 사회윤리는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개인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소망대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사회정의를 인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커다란 욕구들과 이해가 상충할 때 힘으로 지탱할 때 사회정의를 생긴다. 따라서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개인도 정의로 위질 수가 없다.

결국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아가페 사랑이며 가장 자기희생적이며 봉사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사회정의의 궁극적인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사회정의를 추구

해야 한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지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사회정의를 그릇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 사회정의를 이기심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의 아가페 사랑에 의해 규제받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 사회는 강제력이 없을 수 없다. 더불어 사랑이 필요하다. 즉 강제력이 존재하되 이 사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의가 성립된 상태에 만족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에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주의에 현혹되지 말고 일정 수준의 정의실현에 만족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회에 도달할 것인가? 합의된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은 강제력,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의 원리에 의하여 비폭력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과제라 될 수 있다. 교회와 개인, 공동체는 어떻게 참여하고 지도해야 하는가? 교회, 그들과 같이 사는 안된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초월적인 특성,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유지해야 하며 권위를 지켜야 한다. 최종적인 책임은 교회로부터 나와야 한다. 교회는 말씀을 맡은 곳이며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만은 포기해서는 안된다.

복음이란 구원을 만민에게 선포한 것이므로 신앙을 개인화하지 말라. 나의 신앙에 대한 집착과 교회 태도리 안에 축소된 시각으로 신앙은 개인화된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공적인 사건이다. 복음의 공적인 효력이 약화되면 문화적 면에서 사회와의 접촉이 끊어지게 되어 중세의 수도원 운동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기독교 문화가 세속적 문화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것도 신앙이 개인소유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적 패배주의를 자초하는 것 밖에 별 의미가 없다.

기독교는 구원의 의미에서 다시금 접근해야 한다. 구원은 영적이며 육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며 어느 한 쪽이 결핍되어서는 안된다. 구원의 정확한 개념을 바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의식이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세가지 기독교인의 행동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끈질긴 기도, 자기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의 지성을 표명할 줄 아는 양심있는 자성인이 되어야겠다.

셋째, 자기희생을 언제나 아끼지 않을 때에 만능 진정된 복음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인간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올바른 사회선교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대한 인식이 없이는 특히 기독교인은 사회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인간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아무런 해결책도 시도할 수가 없다.

나의 죄악과 나의 중심성과 이것들이 어떻게 나를 파멸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관점이 없이는 사회에 전불리 도전할 수 없다. 인간연구를 시도하는 근본적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생겨났고 부정과 부패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비판론적 낙관론의 인간관 내지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현재는 비판적이나 주님께 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는 진정한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외에는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기독교적 현상을 주도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대처해 다가가야 하며 때로는 울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실한 신관과 확실한 인간관이 있는 자만이 온갖 해괴고 자기중심주의에 빠진 사회를 향하여 회개와 심판의 메세지, 아울러 구원과 희망의 메세지를 던질 수 있는 비판론적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역사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의 오점으로 얼룩져 있다. 역사는 인간의 창조성과 자연의 제약성

대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강남구청 추천 생활보호대상자 중 10명에게

장학회(회장/이영세장로)는 1989년도 상반기 대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지난 3월19일(주일) 오후7시20분 본교회당에서 가졌다.

강남구청의 추천으로 청소원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대학교 입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이 행사는 본교회 3대목표의 하나인 「빈약한자 구제」의 실천 사항이다.

이날 장학혜택을 받은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①정희정(19세·여)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②조태유(20세·남) 한양대 전자공학과, ③김효석(19세·남) 연세대 통계학과, ④한정아(19세·여) 고려대 가정학과, ⑤김연희

(20세·여) 상명여대 화학과, ⑥임정숙(19세·여) 세종대 경영학과, ⑦고민숙(20세·여) 경기대 무역학과, ⑧이명혜(20세·여) 성심여대 의류직물과, ⑨조미자(18세·여) 서강대 불문과 ⑩김자원(19세·여) 서강대



▲ 이종윤위임목사가 대외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찬송경연대회성황 교회학교 장년1부

교회학교 장년1부(부장/김재명장로)는 찬송가 경연대회를 지난 3월19일 12시30분부터 소석관 407호에서 개최, 1등상에 여4반이 차지했다.

89년도 들어 처음 실시한 동 찬송경연대회에는 1백여명의 장년1부 학생들과 자녀들이 참가하여 지정곡 302장 "귀한것 주님께 드려 줘를 때 힘다하라" 1곡과 자유1곡 등으로 열띤 경연을 벌려 찬양과 찬교의 폭을 넓힌 귀한 행사로 끝맺었다.

찬송경연대회 시상결과와 다음과 같다.
▲1등=여4반, ▲2등=부부반, ▲3등=여8반, 남4반

빌립보서 강해 종강 떡잔치

19일저녁 찬양예배시 성도의 교제

이종윤위임목사의 주일저녁 찬양예배시 설교인 빌립보서 강해가 지난 3월19일로 끝을 맺음과 동시에 이날 참석한 1천7백여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이 친히 준비하신 떡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이채로왔다.

지난 88년 5월8일 주일저녁 예배시부터 만 II개월동안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 강해된 빌립보서에서 많은 은혜가 넘쳤다.

이날 이종윤위임목사는 「함께 말씀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며, 놀라

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성도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제하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찬양대 양성교육 매주 목요일 실시

충현 성경연구원은 제3기 찬양대원 양성부

독문학과.

이번 장학혜택자 중에는 3명의 신자도 포함되어 있다.

충현 영빈관 개관 선교사 및 선교사 가족들 이용

세계 도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및 그 가족, 그리고 교회와 관계있는 외국인들의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회당 선교관 5층에 충현영빈관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개관예배를 드린 동 영빈관에서는 복음사역의 국내외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본 교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인사들이 이용대상자가 되며, 객실은 2인 1실의 3개의 방으로 꾸며져 있다.

객실 내에는 냉난방시설을 비롯, 냉장고, T.V시설, 가스렌지, 1인용 침대 2개, 옷걸이, 샤워실,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1인 1실은 하루 8천원, 2인 1실은 하루 1만원씩의

1교구 성황리 마쳐

동 수련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로 지역별 찬양, 가족찬양, 각전도회(디모데, 바울, 마리아, 에스더, 한나) 사업실적보고, 그리고 특기자랑 순서로 진행했다.



▲ 제1교구가 주최한 가족연합수련회 모습

교육을 지난 3월2일 개강하여 오는 6월1일까지 총14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2교시로 교육되고 있는 찬양대 양성부교육의 교과 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찬양대원의 사명 의식(김학진목사) △찬양대원의 경건생활(이원길목사) △예배와 찬양(이귀자선생) △예배찬송과 복음찬송(조신옥) △합창원칙(김영준선생) △시창(이관섭, 송숙자) △합창호흡 및 발성(최시원, 박명신) △충현찬양대의 비전(최시원 음악감독)

시설 사용료를 내야 한다.

동 영빈관에서는 가벼운 커피 정도는 끓여먹을 수 있으나 취사는 절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아담성경반 시간변경
오전6시15~7시15분

편집국에서

·「주간충현」이 하나님의 은총중에 제4호째 발행되게 된것을 성도와 여러 독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한호 한호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편지로 전화로, 직접 「주간충현」 편집국에 오셔서 충현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1개월동안) 편집국으로 보내진 몇가지 질문, 교정, 충고 등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한다.

1. 틀린 글자를 지적하신 여성도께!

(편집국) 창간호와 제2호의 제목가운데 「휴게실」은 잘못 게재된 것이며, 「휴게실」이 맞습니다.

2. 아시바는 일본어

(편집국) 최만수집사가 친히 오셔서 지적하신 제2호 백도풍권사의 「개미의 힘」 기사중 「아시바」는 일본어이며 한국말로 적당히 것은 없으나 「발디담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3. 휴게실 설치에 대한 고언

(편집국) 박태근교사의 자세한 편지 고맙습니다. 본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행정위원회 산하 담당자들이 청년대학생을 위한 「난민의 집」 시설을 착수하게 됩니다.

박교사의 뜻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4. 교회당 내외 청결사항 문제

이정애집사가 제안한 교회당 내외(소석관·선교관 포함) 청결문제는 온 성도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깨끗이 사용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널려져있는 휴지 한장을 줍는다면(또 이런 정성이라면) 우리 교회당은 상당히 깨끗해 질것입니다.

교회당 내외 청소는 미화부 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카운트다운

5월 12일 충현올림픽

광파레

표어 및 상징마크 공모

접수마감: 4월 9일(주일) 오후6시
발 표: 4월 16일 「주간충현」
제 출 처: 충현올림픽조직위원회
시 상: 당선작 1명(주석성경 및 찬송가)
가 작 1명(성경찬송가 합부)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부서: 경기진행부, 심판부, 시상부, 체점기록부,
시설관리부, 차량정비부, 홍보부(사진, 비디오),
봉사부, 섭외부, 기타

※ 신청은 본 조직위원회(선교관 402호)

C · O · C 충현 올림픽조직위원회

전화 552-8200(교화 352번)

독자의 광장

채워주시는 하나님

-교구가족 연합수련회를 마치며

이 부성(집사·1교구 디모데전도회 총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라고 힘있게 다짐하며 만났던 우리 1교구 가족 연합수련회는 기대 이상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450여 명의 1교구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뜨겁게 교회식당을 열기로 가득 채웠던 지난 3월 17일 저녁…… 1부 특강, 2부 합동 구역예배와 저녁식사, 3부 성도의 교제 등 4시간 여의 순서가 아쉬울 정도의 성공적인 만남이었다.

처음 제1교구 5개 전도회가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을 때는 ‘기껏해야 300여명 정도가 모이면 성공이겠지’하고 준비하였던 이 모임은 그동안 김해규 목사님, 장영자 전도사님, 각 지역 장로님들과 5개 전도회 임역원과 각지역 구역장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

70이 넘으신 할머니가 앞에 나오셔서 너

신입전도회원 많이 확보한 것 큰성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실행하면 넘치도록 주서

무 종다며 덩실덩실 춤추시던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저 감사하고 흐뭇할 뿐이다.

그동안 동원을 위해서 쏟았던 열의는 대단했다. 제1교구 비상망을 통해 동원비상령을 D-10에 내렸고 “D데이”까지 각 지역 구역장은 성도의 집을 2-3회 방문하고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전도회는 전도회별로 동원 비상령을 내려 동원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었으며, 이 기도회에 비신자들도 함께 모시도록 하여 전도와 친교에 역점을 두었다.

매일매일 비상망을 통해 행사본부에서 참가인원을 집계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

우리 교회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교회 일일예산중 60%를 대내외 구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36년의 년륜이 쌓인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빈약한 자 구제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이를 감당키 위해 교회 3대목표 위에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미 작년에도(88년) 장애자들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고, 방글라데시, 소련 등에 의약품 및 현금을 보낸바 있는 구제위원회(위원장=오진국장로)는 금년에도 많은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제활동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동 계획에 의하면 대내 구제로 교인구제, 특별구제와 추석, 성탄구제 등이 있고, 대

소년소녀 가장 및 극빈자 구제에 한몫

외로는 소년소녀 가장과 극빈자 구제, 신문배달, 청소원, 환경미화 관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불신자 포함)에게 특별구제하는 일로부터 양로원, 무의촌 전도구제, 재해를 당한 해외 구제, 그리고 밀알선교회(지체부자유자) 등에 구제하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구제위원회는 친교, 조의, 축의 등의 부서를 두어 입원환자 방문안,

를 거듭한 결과 최종 집계는 370여 명이었으나 모임 당일에는 45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열의와 힘을 쏟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준비한 의자가 모자라 계속 의자를 날라야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동안 흥해작전과 여러교작전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새롭게 하였고 “충현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직한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고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된 몸과 마음을 이번 모임을 통해 다시 점검 확인하고 재충전하여 5월 12일에 있을 “충현 올림피아”를 통해 단합된 힘을 합

(중략)

을 거울은 제대로 눈한번 평평내리지 않고, 지나간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만은 전도사님이 계시는 그 곳 겨울은 어떠하셨는지요? 지내시기에 불편은 없으셨는지요?

상화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상상해 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화교회」와 에스더 제7회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인지? 나무가 많고, 뒤에는 뒷동산이 있는 그런 교회인지? 성도는 몇명일까? 주일학교 학생은? 모든 게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중략)

전도사님!

지루한 겨울은 지났지만 봄이 생글 다가오는 이른제 겨울의 여운에 남아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몸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제7교구 에스더전도회 김경애집사 올림

교회기관소개④

구제위원회



▲ 구제위원들이 빈약한 자 구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노인심방 기념품 마련, 상을 당한 가정의 관보 지급, 그리고 이민가는 성도의 기념품 마련과, 결혼 가정의 결혼 축의금(성경책) 등을 구제위원회 각부에서 맡아 이를 집행하고 있다.

구제위원장 오진국장로는 「교회가 결정한 구제사업에 위원들과 함께 전심 전력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89년도 구제위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오진국장로, △지도: 김익경목

사, △부위원장: 최대원장로, △서기: 송기홍장로, △부서기: 박상준집사, △회계: 최대원장로, △봉사 및 친교부장: 최대원장로, 차장: 백죽심권사, △구제부장: 송기홍장로, 차장: 김춘지권사, △조의부장: 김경철장로, 차장: 채수경집사, 부원: 설관호, 최만수, 오인근, 한경선, 김덕만, △축의부장: 박관영장로, 차장: 반정현권사, 부원: 김남진권사, 최만수, 오인근, 한경선집사.

나타내고 이렇게 응집된 몸과 마음을 다해 6월부터 실시되는 “시온성 대행진”에 다같이 참여하여 승리하는 우리 제1교구 가족이 되도록 힘있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서로가 만남의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친교를 돈독히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새벽기도회에 앞장서서 참석하고 교회 삼대 목표 달성과 교구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힘있게 실천하는 제1교구 가족이 되자고 힘차게 다짐하였다. 이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계속 권면하고 심방을 통해 신앙의 판리를 철저히 하여야겠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은 교훈과 결실은 상상외로 성도의 만남이 부족하여 특히 남 성도에게 있어서는 한동네에 살면서도 서로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 팔해주듯이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였다는 것과 새로 본 교회에 등록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각 기관

에 봉사하려고 하여도 아는 사람이 없고 잘 알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는 좋은 재능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만남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좀더 적극적인 신자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것과 남성도를 위한 특별 심방조를 구성하여 계속적인 심방을 통해 교회의 충직한 일꾼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번 모임을 통해 식사시간과 성도의 만남의 시간에 전도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각 전도부위원들이 일일이 입회원서를 드리고 작성케 하여 많은 신입 전도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과 비 신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결산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커다란 수확 중의 하나였다. 끝으로,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강을 통해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 주신 위임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주 심한지역이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날 예배에 장년은 12명 정도 출석하고 있지요. 처음엔 3명이었으나 많이 부흥한 셈이지요. 학생은 고등학교가 없고, 중학교도 다른데 있습니다. 중학생 토요일예배 출석 5명이며, 주일학생은 총 1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중략)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상화교회 기도제목을

전기불도 없는 우상숭배의 섬마을교회

기쁘다 못해 뜨거운 감동이 느껴집니다.

우리 상화교회는 여수에서 배를 타고 1시간30분 거리의 화정면 상화리에 위치한 섬마을이요.

농어촌지역의 50개구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이곳은 전기불도 없는 어두운 곳이요. 자가발전용 이용하여 저녁 6시에 불을 켜 용하면 11시에 꺼져버린답니다.

그런가하면 우상숭배사상과 유교사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① 성전건축문제와 사택수리문제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② 한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상화리에 불이 켜질 수 있도록.
- ③ 전마을의 복음화

상화교회 윤유선전도사 드림.

여전도회활동 이모저모

※편집자주: 다음 글은 제7교구 에스더 여전도회가 전남 여천군 화정면 상화리 섬마을에 위치한 「상화교회」를 89년 1월부터 매월 돕기로 하는 한편, 편지를 통하여 교회형편 내용과, 에스더7회회와 지원활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음교제이다. 일부 말 채하여 쓴다.

상화교회 윤유선전도사님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전도사님께 서신을 드린다는게 생소해서인지 며칠 미루다가 편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충현교회 제7교구 에스더 여전도회 회계 일을 맡고 있는 김경애집사입니다.

금년부터 저희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상화교회를 지원하게 되어 하나님 뜻인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